



◀'지장보살도'



▶'지장시왕도'

고려불화 천년 미소에 오색빛을 더하다

무각사 내달 15일까지 중창불사 특별전...임종로 작가 '스테인드 글라스 고려불화' 전



임종로 작가가 무각사 로터스갤러리에서 스테인드 글라스 기법으로 제작한 고려불화 '아미타팔대보살도'를 소개하고 있다.

'아미타팔대보살도' '수월관음도'...5점 선배 10개월간 伊서 유리기술자들과 함께 제작 전시 끝난후 대응전 지하 1층에 작품 설치

무각사 문화관 카페에 들르면 방문객들을 향해 자애로운 미소를 머금은 보살 그림을 만날 수 있다. 쏟아지는 햇빛을 가득 받아 빛나는 '아미타팔대보살도'는 우리나라에서 흔치않은 스테인드 글라스(Stained Glass·색유리를 이어 붙인 장식용 판유리) 기법으로 제작돼 눈길을 끈다. 주로 유럽 성당에서 볼 수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는 자연 채광과 예술이 결합된 작품으로, 오방색 등 다양한 색채를 사용하는 고려불화를 한층 더 돋보이게 했다.

무각사가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은 성당에서 볼 수 있다는 인식을 깬다. 불교 미술사상 처음으로 고려불화를 스테인드 글라스로 제작한 작품을 신속 중인 지장전 등 건물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무각사 내 로터스갤러리에서 작품을 미리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작품 제작자 임종로 작가를 초청해 오는 2월15일까지 중창불사 특별전 '임종로'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카페에 설치한 '아미타팔대보살도'(가로 1.8m·세로 2m)를 비롯해 '수월관음도', '지장보살도', '지장시왕도', '현대단청' 등 작품 5점을 선보인다.

임 작가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예전부터 스테인드 글라스가 불교미술에 가장 어울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마침 무각사에서 작업 의뢰가 들어와 즐겁게 작품을 제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자리를 함께한 청학 주지스님은 "반지하 형태 지장전이 밝은 분위기를 내도록 유리창을 많이 넣을 계획이었다"며 "일반 유리창 대신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불교예술을 보여주기 위해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작품들은 지난 10개월간 이탈리아에서 임 작가와 현지 유리기술자들이 함께 제작했다. 먼저 임

작가가 스케치와 도면을 작업하면 기술자들은 금·은·동·철·납 등을 800~1000℃ 고온에서 녹여 색을 만들고 유리판에 입힌다. 이번 고려불화 작품에는 약 200가지 전통 색상을 사용했다.

이번에 제작한 고려불화 작품은 상대적으로 어둡고 탁한 색을 내는 기존 스테인드 글라스 제작 방식에 새로운 방법을 추가해 밝고 부드럽게 빛을 낸 게 특징이다.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은 빛과 온도, 습도 등에 관계없이 변색·파손이 되지 않아 수명은 1000년 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작가는 "작품을 제작할 때 앞으로 1000년 동안 전시된다는 생각으로 임했다"고 설명했다.

작품은 자른 색유리를 전시 장소에서 조립해 설치하면 완성되는 방식이다. 전시장소에 맞춰서 제작하기 때문에 실제 설치 전까지는 완성품을 볼 수 없다. 임 작가도 무각사에 와서야 처음 완성품을 볼 수 있었다.

작품은 약 한달 뒤 전시가 끝나는 대로 지난 2014년부터 새로 짓고 있는 대응전 지하 1층 지장전, 전통문화체험관 등에 설치된다. 무각사측은 건물이 완공되는 내년 초 일반인에 공개할 방침이다.

건국대 서양화과를 졸업한 임씨는 이탈리아 피사 로솔리 미술학교, 모자이치스티 델 피올리 미술학교에서 스테인드 글라스와 모자이크를 익혔다. 유럽에서는 두차례 세계대전을 겪은 후 작품과 제작기술이 많이 사라진 상황으로, 오랜 기간 누적된 제작 기술을 익히기 위해 공방작가로 16년간 활동했다.

현재 마케레멜리니 스튜디오 수석 작가로 활동 중이며 지난해부터 경기도에서 미술공방 'Studio AuraArte'를 운영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라고스 대성당, 아우스틴 대성당, 안산 성요셉 성당 등에 작품을 설치했다. 문의 062-383-010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나를 찾아가는 여행'

'하람' 19~21일 갤러리 D서 신년기획전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작품을 통해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광주 문화예술 애호가 모임 '하람'(대표 서재숙)이 19일부터 21일까지 갤러리 D에서 신년을 맞아 '나를 찾아가는 여행'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회원 13명이 참여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시키는 세 가지 코드에 대한 질문을 담아낸 작품을 선보인다.

첫번째 주제 '나에게 과거란'에서 서가는 작가는 작품 '과거를 회상했을 때 생각나는 단어'를 통해 과거의 후회, 미련, 그리움, 행복, 사랑 등 다양한 감정을 표현한다. 두번째 주제는 '지금의 나는'이다. 김인혜 작가가 출품한 '현재 나의 삶은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는 자녀, 재산, 출산, 직장 등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슬한 목표에 대해 보여준다.

노미연 작가('나의 미래에 대한 멘토는 무엇인가?')와 김선아 작가('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은')는 마지막 주제 '미래의 나는'에서 스스로가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점숙·강재경·서재숙 작 '내 마음의 성본은'

2015년 설립된 '하람'은 '생애 그 너머', '소중한 너, 우주 속의 나' 등 삶과 인생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와 참여 프로그램을 열고 있다. 문의 062-222-801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오르세 미술관 고갱·고흐 작품 감상

인문지행 문화행사...22일 광주극장 영화의 집

인문학 시민공동체 '인문지행'이 20번째 문화예술기획을 진행한다. 22일 오후 2시~4시 광주극장 영화의 집.

이번 강좌는 파리 오르세 미술관을 둘러보는 5번째 시간으로 고갱과 고흐의 작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

이번에 감상하는 고갱의 작품은 '아름다운 양털', '황색 그리스가 있는 자화상', '부르타뉴의 여인들', '타히티의 여인들'이며 고흐 작품으로는 '자화상', '가세 박사의 초상', '아들의 침실',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을 만날 수 있다.

또 인상주의 그림에 과학적 방법을 도입한 조르주 쇠라의 '둥이 보이는 모델'을 비롯해 틀루즈 로트레크, 폴 시냐크의 작품도 만난다.

인문지행은 문화예술기획을 통해서 명작에 담긴 예술적 가치를 함께 나누며 인문학적 정신의 확장과 공유를 지향한



고흐 작 '자화상'

다. 인문지행 대표 심옥숙 박사가 기획과 진행을 맡고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인문지행(cafe.daum.net/h-arete) 문의 010-2656-9208, 010-5205-5668. /김미근기자 mekim@kwangju.co.kr

박광식·양계남·김재일·하철경·김병모·정 철·김효삼·박은수·고희자·신은학·한갑수·장규오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12인 초대전

"문화나눔으로 따뜻한 세상을"

기간: 2016. 12. 23(금) ~ 2017. 1. 23(월)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M갤러리

세계조각·장식박물관 ☎ (062)222-0072 (예술의거리 서문입구)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 Yang Park Hotel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